

당나라의 고구려 침공과 기마전

李弘斗*

1. 머리말
2. 당 태종의 1차(645) 고구려 침공과 기마전
3. 당 태종의 2차(647~648) 고구려 침공과 기마전
4. 당 고종의 고구려 침공과 기마전
5. 맺음말

1. 머리말

기마전은 기병전술에 따라 기병을 배치하고 투입하는데, 그것은 말의 생산, 진법훈련, 무기 등과 직접 관련이 있다. 한편으로 기마전은 교전하는 방법에 따라 '평지 기마전'과 개문 출격하여 벌이는 '성 밖 기마전'으로 구분한다. '평지 기마전'은 기병을 중앙에 배치하는 것과 좌·우측면에 배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자는 적군의 중앙 보병대열을 공격할 때 사용한다. 이때 적군의 창병이 견고한 방진을 구축하면 전진할 수가 없다. 따라서 보병과 포병의 후방지원이 필수적이다. 후자는 청야입보전술을 수행 중 성 밖으로 출격하는 기마전을 지칭하는데, 이는 적을 기습하고 성으로 귀환해야

* 홍익대학교 교수

됨으로 기동력과 타격력을 요구한다. 특히 무장한 소수의 중장 기병이 적진에 돌진하여 전쟁의 흐름을 아군 쪽으로 바꾸는 돌격대도 기동력과 타격력의 유무가 승패를 좌우한다.

당나라의 부대 편제는 기병으로만 구성된 跳盪隊, 기병과 보병을 절반씩 편성한 戰鋒隊, 전차만으로 편제한 駐隊가 있다.¹⁾ 다시 말해서 도탕대는 중무장한 기병인데, 적진으로 돌진하는 선봉대였고, 전봉대는 공격을 주도하는 부대이며, 주대는 주로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다만 전봉대가 휴식할 경우, 주대가 나가서 싸웠다. 당군은 적이 일면을 공격하면, 기병을 측면에 배치하여 엄호하였고, 적이 양면에서 공격해 오면 기병을 적진 후방으로 돌려서 공격하였다. 특히 적이 패주하면 기병으로 즉각 추격했다. 당나라는 한나라 때의 주력군이던 전차부대²⁾를 기병 중심의 편제로 전환하고 일련의 기병전술을 습득하여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따라서 당나라 기병전술을 인식하는 것이 양국 기마전을 이해하는 관건이 되겠다.

한편 고구려는 기병을 주력군으로 삼고, 보병은 기병을 보조하여 작전을 전개하였다. 철기병이 적의 방어선을 타격하고 돌파할 때 경기병은 기동력을 이용해 부대를 신속하게 이동시키거나 전술적 요충지를 선점할 때 투입하였다. 보병은 도끼부대로 지칭하는 선봉대가 있고, 기병을 보조하는 일반 보병이 있었다. 따라서 기병과 보병의 비율은 적군의 편제나 지형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했다. 이러한 변화의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고구려군의 기마전을 이해하는 핵심 사항이 되겠다.

당나라의 고구려 침공 내지는 고구려의 대당전쟁에 관한 연구는 전쟁사 분야의 연구³⁾와 전략전술 분야의 연구⁴⁾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전자가

1) 李靖 著·이현수 역, 『李衛公兵法』, 상권, 1999, “臣以今法參用之 則跳盪騎兵也 戰鋒隊步騎相半也 駐隊兼車乘而出也.”

2) 전차는 창을 가진 전사, 마부, 활을 쏘는 사수가 한 조를 이룬다. 한나라 때는 전차 한 대에 100~150명의 보병을 배치하였다. 이들 전차 부대는 밀집 대형을 갖춘 후 서로 마주 달려가 한번에 승패를 결정지었다.

3) 서인한, 「고구려 대외 전쟁기」 『한국고대 군사전략』, 2005.

서영교, 「고구려의 대당전쟁과 내륙아시아 제민족-안시성전투와 설연타」 『군사』 49, 2003.
임용한, 『전쟁과 역사』, 해안, 2001.

전쟁사 연구의 일반적 단계라고 한다면, 후자는 전쟁사 연구의 심층적 단계인 셈이다. 그런데 현재 국사학계의 연구 수준은 심층적 연구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이 시기 기마전에 관한 연구 논문이 한 편도 없는 사실이 그것을 입증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당나라의 고구려 침공과 기마전에 관한 연구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바 세 시기로 구분하여 진행하려고 한다. 먼저 당 태종의 1차(645) 고구려 침공과 기마전을 요동성전투와 안시성전투로 나누어 살펴보고, 다음으로 당 태종의 2차(647~648) 고구려 침공과 기마전을 국경선 근처의 소규모 전투를 중심으로 고찰하며, 끝으로 당나라 고종이 주도한 나·당연합군의 고구려 침공과 기마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2. 당 태종의 1차(645) 고구려 침공과 기마전

(1) 요동성 전투와 양국의 기마전

당 태종⁵⁾은 서쪽으로 투르크족과 토번·서돌궐을 정복하고, 동쪽으로는 백제와 고구려를 정복하여 세계제국을 건설하였다. 이러한 당나라의 세계제국 건설은 이전의 군제제도를 개혁함으로써 가능하였다. 수나라의 부병제⁶⁾

서인한, 『고구려 대수·당전쟁사』,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91.

이만열, 「고구려와 수·당과의 전쟁」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1978.

박형균, 「연개소문의 서정국책과 대당전역」 『학술지』 10, 건국대, 1969.

4) 박경철, 「高句麗軍事戰略考察을 위한 一試論」 『사학연구』 제40호, 1989.

5) 당 태종은 고구려를 두 번 침공하였다. 1차 침공은 645년 요동성·백암성·안시성 전투이고, 2차 침공은 647~648년의 남소성·박작성 일대의 전투다. 1차 침공 때는 속전속결 전술로 요동성과 백암성을 정복했지만, 안시성 점령에는 실패하였다. 2차 침공 때는 속전속결 전술을 폐기하고, 국경선 근처에서 소규모 전투로 고구려 군사력을 약화시킨 다음, 대군으로 진격하는 전술을 썼다. 649년 5월 당 태종이 국경선 전투에서 죽은 이후 대규모 전투가 줄었다.

6) 수나라 병제는 농민 중에서 선발한 부병을 절충부에 예속시켰지만, 전시에는 이들을 모두 동원하였다. 그러나 통일 이후 당나라 부병은 평생토록 병역에 종사했는데, 일단 징집되어 伍에 편입되면 60이 되어야 독립하였다.

를 계승하여 상시로 농민들을 동원하였으며, 전차부대를 축소하고 경기병⁷⁾을 주력군으로 편제하여 기동력을 향상시켰다.

1차 고구려 침공 때 당나라는 요동성을 강점하기 위해 주력군을 투입하고, 이를 위해 두 가지 전략을 세웠다. 먼저 이세적은 요하 서북쪽에서 남쪽으로, 수군은 요동반도 남쪽 끝 비사성에서 북쪽으로 공격하였다. 다음으로 요동성에 대한 고구려군의 지원을 막기 위해 주변의 개모성, 건안성, 비사성을 먼저 점령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여기서는 요동성 밖 '평지 기마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대군을 상대하는 평지의 기마전은 기병을 배치하는 위치, 즉 전면·측면·후면에 따라 공격전술이 다르다. 한편으로 기병은 적의 견고한 방진을 만나면 전진할 수 없기 때문에 보병이나 포병의 후방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양국의 기마전을 고찰할 것이다.

645년 5월 이세적은 요동성에 도착하고, 당 태종이 요택의 동쪽을 건넜다. 이에 양국 군대는 요동성 밖에서 기마전으로 교전하였다. 다음의 사료가 당시의 기마전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왕은 신성과 국내성의 보·기병 4만을 내어 요동을 구원하니, 도종이 4천의 기병을 거느리고 향거했다. 싸움이 어우러지자, 행군총관 장군예가 후퇴하여 달아나니 당의 군사가 무너졌다. 도종이 흩어진 군사를 수습하여 높은 데 올라보니 우리의 진영이 어지러운지라 날랜 기병 수천과 함께 공격해 오고, 이세적은 군사를 끌고 와 도우니 우리 군사가 크게 패하여 죽은 자가 천여 명이 었다. (중략) 이세적은 포차를 벌여놓고 큰 돌을 날리자 3백보를 지나가 부딪는 곳은 바로 무너지니, 우리는 나무토막을 썬아 다락을 만들고 굵은 새끼로 그물을 맺어 막았다. 당 태종은 날랜 군사를 시켜 충간의 끝에 올라가 그 서남쪽 다락에 불을 지르니 불이 성안을 태웠다. 그 틈에 장병을 지휘하여 성에 오르니 우리 군사가 힘을 다하여 싸웠으나 이기지 못했다. 죽은 자 만 명, 불

7) 당나라는 기동성을 살리기 위해 말의 갑옷을 모두 벗겼다. 기병 역시 철갑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가죽을 사용하여 무게를 줄였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중장 기병이 상실했던 속도와 기동성을 크게 향상시켰다(임용한, 앞의 책, 177~178쪽).

잡힌 뛰어난 군사 만 명, 남녀 4만 명, 군량 50만 석이었다. 그 성을 요주로 삼았다.⁸⁾

위 사료는 고구려 군의 보·기병 4만과 당나라 기병 4천이 요동성 밖에서 기마전을 수행한 결과 도종의 휘하 장군에는 패배하였지만, 도종이 흩어진 군사를 수습하여 철기병 수천 기로 고구려 군을 격파하였고, 한편으로 당나라 이세적과 태종이 협공하여 요동성을 함락시켰다는 내용이다.

당나라 기병대는 두 번 교전하여 한 번은 패배하고 한 번은 승리하였다. 먼저 행군총관 장군예가 패배한 것은 고구려 보병이 강력한 방진을 구축하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기병이 보병 대열을 공격할 때는 보병 대열 안에 빈틈이 생겼을 경우에만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장군예가 고구려 보병의 방진을 직접 공격했지만, 고구려 보병 대열이 강력한 대형을 이루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기병의 전술적인 잠재력은 중앙에 보병을 배치하고, 좌·우측에 기병을 배치할 때 나타난다. 그런데 당시 당 군은 한 명의 보병 지원도 받지 못했으며 이것이 결정적 패인이었다.

도종은 장군예의 패배 요인이 강력한 보병 대열을 향해 기병 공격을 계속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고구려군의 취약한 지점을 찾기 위해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고구려군의 움직임과 지형을 분석하여 당나라 기병에게 유리한 전술을 수립하였다. 다시 말해서 대형을 잘 갖추고 있는 고구려군의 대열을 분열시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더 큰 충격력을 가진 중장기병을 투입하되, 취약한 보병 대열을 집중 공격코자 하였다.

도종의 철기병인 도탕대가 고구려군 진영 깊숙이 돌격함으로써 고구려 구원군은 후퇴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동력이 우수한 경기병인 陷騎를 적진 측면으로 투입시켜 고구려 보병을 격파하고, 고구려 군 후방으로는

8) 『삼국사기』 권 21, 고구려본기 9, 보장왕 상. “王發新城,國內城步騎四萬救遼東 道宗將四千騎逆之 既合戰 行軍總管張君父退走 唐兵敗衄 道宗收散卒 登高而望見 我軍陣亂 與驍騎數千衝之 世勣引兵助之 我軍大敗 死者千餘人 (中略) 世勣列砲車 飛大石過三百步 所當熱潰 吾人積木爲樓 結組 以拒 帝遣銳卒登衝竿之末見 甕其西南樓 火延燒城中 因揮將士登城 我軍力戰不克 死者萬餘人 捉勝兵萬餘名 男女四萬口 糧五十萬石 唐以其城爲遼州.”

기병에비대인 遊騎를 투입하여 후퇴하는 고구려 군을 추격했을 것이다.⁹⁾ 이때 이세적이 군을 이끌고 도착하여 고구려 군을 협공하여 철저히 격파했는데, 당시 고구려 군은 1천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요동성 안으로 퇴각하여 형세를 관망할 수밖에 없었다.¹⁰⁾

그러면 당나라 군대가 요동성을 포위한 공성전에서 기병은 어떠한 역할을 하였을까? 먼저 당나라 기병의 역할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고구려 군의 포차와 포대를 직접 탈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병이 쉽게 성을 점령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이었다. 여기서 포차와 충차는 모두 요새를 공격할 수 있는 투석기를 말한다.

당시 당나라 군대가 포차를 계속 쏘면, 고구려 쪽에서는 잠시 주춤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틈에 당나라 기병이 긴 창으로 포차를 쏘는 군사를 죽이거나 보병이 성벽을 넘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러한 보·기병의 근접지원체제는 요동성 서쪽에서 당 군의 보병이 요동성 정자에 불을 지르기 위해 성벽을 오를 때 기병의 근접지원이 있었다.

한편 수성전으로 방어하는 고구려 군의 기마전은 두 가지 전술을 사용했다. 먼저 당 군의 주력 부대를 상대할 때는 창을 사용해 疾走하여 적진을 돌파하였고, 다음으로 기병이 성문을 나가 포차의 공격을 피하면서 근접 기마전을 수행한 다음, 성으로 귀환해야 하는 경우의 기마전은 창과 甲冑로 무장하고 速走하는 공격 방법을 사용했다.

성을 방어하는 기마전에서 갑옷은 중요한 방어무기였다. 경기병은 창과 두 겹의 가죽으로 만든 갑옷을 착용하였고, 중기병은 기병도와 철제 갑옷으로 무장하였다. 따라서 고구려 기병은 이러한 갑옷을 착용하고 충차의 지원을 받으면서 성 밖에서 기마전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포차와 화공전술로 무장한 당 군의 공성전을 막지 못해 요동성을 지킬 수가 없었다.

9) 이정 저·이현수 역, 『이위공병법』, 중권, 1996, 85쪽.

10) 고구려는 중기 이후 성곽을 굳게 지키다가 틈이 보이면 개문 출격하는 청야입보전술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당 태종은 전차와 중장기병을 축소하고 경기병을 확대함으로써 청야입보전술에 대응한 새로운 전술체계를 창안하였다. 부대를 경기병 중심으로 편제함으로써 돌격과 추격전에서 기동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기병대의 단독전술도 가능하였다.

(2) 안시성 전투와 양국의 기마전

645년 5월 요동성을 점령한 당군의 주력부대는 6월 하순부터 안시성¹¹⁾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고구려는 옥살 고연수와 고희진이 15만의 고구려·말갈 연합군을 이끌고 안시성 동남쪽에 진을 쳤다. 이에 따라 두 나라는 안시성 밖에서 기마전을 수행하게 되었다. 다음의 사료가 당시의 기마전에 대해 말하고 있다.

고연수가 듣지 않고 군사를 끌고 곧장 나아가 안시성과 40리 떨어져 진을 치니, 당 태종은 그들이 머뭇거리고 오지 않을까 염려하여 대장군 아사나두이를 시켜 돌궐의 기병 1천을 거느리고 가서 유인토록 했다. 싸움이 시작되자 거짓 달아나니, 고연수가 “볼 것이 없다”하고 다투어 나아가 기세를 타서 안시성의 동남 8 리 지점에 당도하여 산을 의지하여 진을 쳤다.

당 태종이 장손무기 등과 함께 수백의 기병을 데리고 높은 데 올라가서 산천의 형세를 둘러보고 복병할 수 있는 곳과 군사를 내어 들일 곳을 살폈다. 우리 군사가 말갈 군과 합세하여 진을 쳤는데, 그 길이가 40리에 잇댄 것을 보고, 당 태종은 두려워하는 기색을 나타내면서 (중략) 사신을 시켜 연수를 유혹하기를, “나는 너희 나라 신하가 임금을 죽였기로 와서 죄를 묻는 것이오, 마주쳐 싸우는 것이 본심이 아니다” 하였다. (중략)

당 태종은 밤에 장수들을 불러 작전계획을 지시했다. 이세적을 시켜 보병 1만 5천을 거느리고 서쪽 구릉에 진을 치도록 하고, 장손무기와 우진달로 하여금 정병 1만 1천을 거느리고 奇兵이 되어 산 북쪽으로부터 좁은 골짜기로 나와 적의 후방을 치도록 하고, 당 태종은 친히 보·기병 4천명을 거느리고 북과 깃발을 가지고 산에 올랐다. 당 태종은 여러 군에게 명령하기를, “북소리가 들리거든 일제히 나와 돌격하라”하고 이어 관원을 시켜 막사 옆에 항복 받는 막사를 짓도록 했다.

이튿날 연수 등은 이세적의 군사가 얼마 되지 않는 것을 보고 군사를 몰아 싸

11) 안시성은 오늘날 요동반도 남쪽 해성시 동남쪽 영성자 산성으로 추정된다. 길이는 2.5km의 토성이며, 타원형 산등성이를 따라 축조하였다. 요동평원에서 요하 지류로 진입하는 교통의 중심이면서 군사요충지였다.

우려고 하니, 당 태종이 장손무기의 군사가 먼지를 일으키며 오는 것을 보고 북을 치고 깃발을 쳐들게 하니, 여러 군사가 고함을 치며 함께 나아갔다. 고연수 등이 두려워하여 군사를 나누어 막으려 하였지만, 그 대형이 벌써 무너졌고 때마침 뇌성과 번개가 쳤다.

용문사람 설인기가 이상한 군복을 입고 호통을 치며, 陣을 부수어 닥치는 곳마다 대적할 자가 없는 데다 아군이 쓰러지매 적의 대군이 덮치니, 아군이 크게 무너져 죽은 자가 3만여 명이었다.¹²⁾

위 사료는 당나라 3 만의 군사가 안시성을 구원하려고 출격한 고구려의 15만 구원군을 안시성 밖 평지 기마전에서 승리했다는 내용이다.

645년 안시성 밖 기마전 당시 고구려 병력은 15만이고, 당나라 병력은 3만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왜 다섯 배가 넘는 고구려군이 당군에게 패배하였을까? 그것은 당 태종의 전술운용 능력과 관련이 있다. 처음 당 태종은 병력이 열세하므로 정면에서 공격하면 승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유리한 지형을 차지한 다음, 고구려 군을 혼란에 빠뜨려, 첩기병으로 돌격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당군은 전차와 기병이 교전하기 좋은 평탄한 지형을 먼저 선택하고, 아사나사이¹³⁾ 장군에게 기병 1천기를 주어 거짓으로 패한 척하면서 고연수 부대를 안시성 동남쪽으로 유인하였다.¹⁴⁾ 그리고 당 태종이 안시성 동남쪽

12) 『삼국사기』 권 21, 고구려본기 9, 보장왕 4년 5월, “延壽不從 引軍直進 去安市城四十里 帝恐其低徊不至 命大將軍河史那杜余 將突厥千騎以誘之 兵始交而偽走 延壽曰 易與耳 競進乘之 至安市城東南八里 依山而陣 帝乃與無忌等從數百騎 乘高望之 觀山川形勢 可以伏兵及出入之所 我軍與鞞鞞合兵爲陣 長四十里 帝望之有懼色 (中略) 遣使給延壽曰 我以國強臣殺其主 故來問罪 至於交戰 非五本心 (中略) 帝夜召文武計事 命世勤將步騎萬五千陣於西嶺 長孫無忌 牛進達將精兵萬一千爲奇兵 自山北出於狹谷 以衝其後 帝自將步騎四千 挾鼓角偃旗 登山 勅諸軍 聞鼓角齊出奮擊 因命有司張受降幕於朝堂之側 旦日延壽等見世勤軍少 勒兵欲戰 帝望見無忌軍塵起 命作鼓角舉旗 諸軍鼓噪並進 延壽等懼 欲分兵禦之 而其陣已亂 龍門人薛仁貴著奇服 大呼陷陣 所向無敵 我軍披靡 大軍乘之 我軍大潰 死者三萬餘人.”

13) 阿史那社爾는 돌궐족인 處羅可汗의 둘째 아들이다. 636년 당 나라에 항복하여 좌효기대 장군에 봉해졌으며, 당나라 군대를 거느리고 高昌國, 龍茲國 등을 물리쳤다.

14) 당군은 후퇴하면서 한 차례 교전을 한 뒤 고구려군의 동태를 관찰했다. 그런데 고구려군이 앞을 다투어 당군을 추격해 오고, 그들의 대열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고연수를 무능한 장수로 평가하였다.

8리에 있는 구릉에 올라가 매복할 장소를 선정하고 진을 쳤다. 진은 正兵과 奇兵을 구분하여 쳤는데,¹⁵⁾ 정병은 공격하는 부대이고, 기병은 후퇴하거나 적의 측면을 공격하는 부대다. 이와 같은 기준에서 보면, 서쪽 능선에 매복한 1만 5천의 이세적 부대는 정면에서 공격하므로 정병이고, 산 북쪽 계곡에서 나온 1만 1천의 장손무기와 우진달 부대는 적의 후면을 치기 때문에 기병인 셈이다. 당 태종은 정병술과 기병술 운용 능력이 뛰어났다. 정병술은 아군이 정병을 쓰는데 적에게는 기병을 쓰는 것처럼 보이고, 기병술은 아군이 기병을 쓰는데 적에게는 정병을 쓰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튿날 아침 고연수는 이세적 부대의 군사가 소수라는 사실을 알고, 공격 태세에 돌입했다. 그때 산 위에 진을 치고 있던 당 태종은 장손무기의 부대가 고구려군 후방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즉시 북을 치고 깃발을 들어 공격하도록 신호를 보냈다.

奇兵으로 위장한 이세적 부대는 正兵의 대부대로 진형을 바꾸어 고구려군을 정면에서 공격할 준비를 마쳤다. 선봉대는 기병과 보병을 반반으로 편성한 戰鋒隊를 배치하였고, 후방에는 전차와 보병을 혼합한 駐隊를 배치하였으며, 선봉대와 주대 사이에는 기병으로 편성한 도당대를 배치하였다.

선봉대는 보병으로 구성된 6개 부대를 방진으로 배치하고, 보병의 안쪽으로는 기병을 원형으로 배치하여 앞의 보병 대열이 무너질 때를 대비하였다. 한편 후방에 배치한 주대는 전차(偏箱車¹⁶⁾)를 연결하여 원형의 鹿角車營¹⁷⁾으로 진을 쳤다. 한 개의 편상거에는 75명의 보병을 전방과 좌·우측 3개로 나누어 25명씩 배치하였다. 특히 편상거 지붕은 판자로 덮었는데, 전

15) 당 태종은 正兵과 奇兵에 대해 두 가지로 이해하였다. 먼저 전진하는 군사를 正이라 하고, 후퇴하는 군사를 奇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적을 정면에서 맞아 싸우는 대병력을 正兵, 지휘관의 재량으로 내보내는 병력을 奇兵이라고 하였다.

16) 偏箱車는 扁箱車라고도 하는데, 일설에는 평평한 상자 모양으로 지형의 넓고 좁은 모양에 따라 개조할 수 있는 수레라고 하였다.

17) 녹각거영은 여러 대의 편상거를 연결하여 원형으로 만든 진영이다. 수레 밖으로 창과 칼을 설치하여 그 모습이 사슴뿔과 같다고 하여 이런 이름을 붙였다.

후·좌우에는 긴 창을 쫓고 전진했을 것이다.¹⁸⁾

고연수 사령관은 수만 기의 기병을 선봉에 배치하여 이세적 군의 공격을 차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말들이 편상거에 쫓힌 창과 칼에 놀라서 전진하지 못했다. 따라서 고구려 기병의 전투력이 급속히 떨어져 대열이 붕괴하기 시작했다. 이때 편상거 후방에 대기하던 설인귀 장군이 철갑으로 무장한 도탕대를 이끌고 고구려 진영으로 돌격하여 고구려 기병대를 격퇴하였다.

기병대가 무너지면서 고구려 군이 후퇴하자, 1만의 장손무기 기병대가 북쪽에 위치한 산의 골짜기를 따라 후방을 공격하였다. 고연수 부대는 후방을 방어하지 못해 3만여 명의 군사가 죽고, 안시성 교외 산으로 퇴각하여 전세를 관망할 수밖에 없었다. 당군은 사방에서 고구려군을 공격하면서 한편으로 고구려군의 퇴로를 차단하였다. 따라서 고립무원의 고구려 군은 3만 6천여 명의 군사를 수습하여 당군에게 투항하였다.

6월 하순에 안시성을 공격하기 시작하여 성 밖 '평지 기마전'에서 승리한 당군은 8월 초순에 주력부대를 안시성으로 옮겨 성을 포위하였다. 이때 안시성의 성주 양만춘은 유격전의 일종인 奇兵 전술로 대응하였다. 그러면 성을 지키는 고구려 군과 성을 포위한 당나라 군대간의 기마전은 어떠하였을까? 다음의 사료가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도종이 군중을 독려하여 성의 동남쪽 모퉁이에 토산을 쌓아 차츰 성의 높이와 같아졌다. 성 안에서도 성을 높이 증축하여 항거하였다. 병졸들은 반을 갈라 하루에 7~8 번씩 교전했는데, 衝車와 돌쇠뇌를 쏘아 우리 성 귀퉁이를 무너뜨리자, 성 안에서도 목책을 세워 무너진 곳을 막았다. 도종 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토산을 쌓았다. 50만 명의 인력으로 60일을 쌓으니 그 토산의 꼭대기가 성보다 두어 길이 높아져 성 안을 내려다 볼 수 있었다. 도종은 과의 부복에게 군사를 주고 산꼭대기에 주둔하면서 적을 방비토록 하였다. 그런데 토산이 무너지며 성을 누르고 성첩이 무너졌다. 그 때 부복애가 개인일로 부

18) 이정 저·이현수 역, 『이위공병법』, 상권, 1996, 33쪽.

대를 이탈하였기 때문에 고구려 기병 수백 명이 성의 무너진 곳으로 나와 토산을 점령하고 참호를 만들어 지켰다. 당 태종은 부복애를 죽이고 여러 장수에게 공격을 명령하여 교전하였지만, 3일이 지나도 이기지 못했다.¹⁹⁾

위 사료는 당 군이 성 밖에 토산을 쌓고 공격하자, 안시성에서도 성벽을 높이 쌓고 대응하면서 기병을 성 밖으로 내 보내 하루에 6~7 번의 기마전을 전개하였으며, 토산이 무너지자 기병을 출격시켜 신속하게 토산을 점령했다는 내용이다.

안시성은 난공불락의 요새화 한 성이었다. 당 태종은 공성전 포위장비인 충차와 돌쇠뇌로 성벽을 부서뜨려 성내로 진입코자 하였다. 그러나 안시성의 군사들도 투석기를 쏘아 공성기인 충차와 돌쇠뇌를 부수었다. 특히 수백 명의 철기병이 하루에 6~7번씩 성 밖으로 출격하여 기마전을 수행함으로써 안시성을 방어하였다.

당나라 군대는 사다리를 준비하고, 성 높이에 해당하는 토산을 쌓아 안시성 포위 전략을 다양화 했다. 특히 토산 안에 다섯 개의 길을 내고 흙을 날랐으며, 군사들이 토산 꼭대기에 올라가 안시성을 내려다보면서 맹렬히 공격하였다. 그러나 고구려 군은 성을 더 높이 쌓아 당 군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저지하였다.

그런데 토산이 높이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자, 안시성에서는 수백 명의 기병을 출격시켜 신속하게 토산을 점령하였다. 이와 같이 당시 안시성 방어에는 기병의 역할이 매우 컸다. 따라서 당나라 태종은 군량이 바닥나고 물과 풀을 얻을 수 없었으므로 군대를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19) 『삼국사기』 권 21, 고구려본기 9, 보장왕 상 4년 9월, “道宗督衆築土山於城東南隅 浸逼城中亦增高其城 以拒之 唐士卒分番 交戰日六七合 衝車礮石 壞其樓堞 城中隨立木柵 以塞其缺 道宗築山晝夜不息 凡六旬 用功五十萬 山頂去城數丈 下臨城中 道宗使麾下果毅傅伏愛將兵屯山頂 以備我 山頽壓城 城崩 會伏愛私離所部 我軍數百人 從城缺出戰 遂奪據土山 塹而守之 帝怒斬伏愛以徇 命諸將攻之 三日不能克.”

3. 당 태종의 2차(647~648) 고구려 침공과 기마전

647년 당 태종과 관료들은 고구려 재침을 논의했는데, 이전의 대규모 속전속결전술 대신에 소규모 유격전술로 전환하였다. 다시 말해서 소부대로 고구려 변방을 자주 침입하여 사회혼란이 심화되면 대부대로 고구려를 정복한다는 전략이었다.

당 태종은 이를 받아들여 647년 3월 고구려 침략을 위한 원정군을 편성하였다. 먼저 대장군 우진달에게 1만의 군사를 주고 산둥반도에서 배를 타고 평양을 공격토록 했다. 다음으로 태자 첨사 이세적을 요동도 행군대총관으로 삼아 군사 3천을 주었다. 그리고 영주도독부의 군사들을 배속시켜 신성 쪽으로 진격토록 하였다.

그러면 요하를 건너 이세적의 당 군과 고구려 군의 기마전에 대해 살펴보자.

이세적의 군대가 요하를 건너 남소성 등 두어 성을 경유하는데 모두 성을 등지고 향거하였다. 이세적이 이를 격파하고 성곽을 불태우고 돌아갔다.²⁰⁾

위 사료는 이세적의 군대가 요하를 건너 남소성과 목저성에서 고구려 군과 기마전을 전개했는데, 고구려 기병이 패배함으로써 이세적의 부대가 성 주변에 불을 지르고 퇴각했다는 내용이다.

이세적의 휘하 부대는 수전에 능한 자가 많았기 때문에 요하를 어렵지 않게 건너 5월에 남소성에 도착하였다.²¹⁾ 남소성의 고구려 부대가 성문을 등지고 진을 쳤기 때문에 당군은 기병을 본대의 좌·우측에 배치하여 고구려 군의 측면 공격을 시도하였다. 전방에는 駐隊를 배치하고, 소수의 奇兵을 선봉에 배치하여 남소성의 부대가 공격하도록 유인하였다.

20) 『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 10, 보장왕 하 6년, “李世積軍既度遼 歷南蘇等數城 皆背城拒戰 世積擊破之 焚其羅郭而還.”

21) 『자치통감』 권 198, 21년 5월, 7월

남소성의 고구려 부대는 적의 규모가 소수인 사실을 알고 기병을 앞세워 중앙 대열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당군은 駐隊를 앞세워 6개의 방진을 치고 고구려 기병대를 파괴하였다. 고구려의 중앙 기병대가 파괴되었을 때 좌·우익의 전열도 무너졌다. 이때 당군이 우회하여 기병으로서 고구려군의 측면과 후면을 공격하였고, 보병으로는 고구려군의 중앙을 가격하였다. 고구려군은 성 밖 기마전에서 당 군에게 패퇴하여 많은 병사가 전사했다. 이후 남소성에서는 청야입보전술로 전환하여 수성전을 전개하였다. 한편 목저성의 전투도 처음에는 성 밖 기마전으로 시작했지만, 전차와 기병을 앞세운 당 군에게 패퇴함으로써 수성전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당 태종은 648년 1월 고구려를 토벌하기 위해 설만철에게 수군 3만을 주어 압록강 하구에 진출시켰다. 그리고 4월에는 당 나라 전초기지인 오호진 소속의 수군이 압록강 하구에 도착하여 일진일퇴를 거듭하였다. 특히 설만철이 거느린 3만 명의 당군이 압록강 어구에서 교란작전을 벌이다가 9월에는 泊灼城²²⁾ 부근까지 진출하여 기마전을 전개하였다. 다음의 사료가 그러한 사실을 말하고 있다.

설만철 등이 바다를 건너 압록강으로 들어와 박작성 남쪽 40 리에 진을 치고 주둔하니, 박작성 성주 소부손이 보·기병 1만여 명을 거느리고 항거했다. 만철은 우위장군 배행방을 보내어 보졸 및 제군을 지휘해 승세를 타고 진격해 우리 군사가 무너지니 행방이 진격해 와 포위하였다. 박작성은 산에 의지해 험준한 요새를 만들고, 압록강을 등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공격으로도 깨뜨리지 못했다. 우리 장수 고문이 오골성과 안시성 등 여러 성의 군사 3만여 명의 구원군이 도착하자, 부대를 두 개로 나누어 진을 쳤다. 만철이 군사를 나누어 이에 대응했는데, 우리 군사가 패배하였다.²³⁾

22) 박작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학설이 있다. 하나는 당시의 압록강이 지금 요하를 지칭하므로 요하 하구부근, 즉 지금의 반산 부근으로 비정한다. 다른 하나는 일찍이 고이병도 박사가 박작성을 “지금의 안평하구”라고 했는데, 이는 압록강을 지금의 압록강(당시 패수)으로 보는 견해다. 필자는 이병도의 견해를 따랐다.

23) 『삼국사기』, 권 22, 고구려본기 10, 보장왕 하 7년 9월, “萬徹等 渡海入鴨渌 至泊灼城南四十里止營 泊灼城主所夫孫帥步騎萬餘拒之 萬徹遣右衛將軍襄行方 領步卒及諸軍乘之 我兵潰 行方等進兵圍之 泊灼城因山設險 阻鴨渌水以爲固 攻之不拔 我將高文率烏骨 安地諸城兵三萬餘人來援 分置兩陣 萬徹分軍以當之 我軍敗潰.”

앞의 사료는 고구려 군대가 박작성 남쪽 40 리에서 설만철 부대와 기마전을 전개하여 패배하였으며, 9월에는 고구려 연합군 3만이 설만철 부대와 기마전을 전개했지만 패배했다는 내용이다.

설만철²⁴⁾의 휘하 3만의 군대가 4월에 압록강어귀에 도착하여 6월말에는 압록강 상류 60 리에 진을 쳤다. 이때 박작성을 지키던 고구려 장수 소부손이 보·기병 1만여 명을 이끌고 박작성 남쪽 40 리까지 출격하였다. 이때 설만철은 우위장 배행방에게 작전권을 주어 고구려 소부손 부대와 교전토록 하였다.

배행방은 駐隊를 원형의 녹각거영으로 만들어 선봉에 배치하였다. 주대는 편상거 한 대와 무장한 75명의 보병이 기본 단위였는데, 그들은 짧은 창과 방패를 가지고 적의 접근을 차단하였다. 이같이 배행방의 당군은 녹각거영을 이용하여 전투력을 유지하고 전진하면서 고구려 기병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냈다.

배행방은 기병으로만 편성된 도당대를 후방에 배치하고, 그 중간에는 보병과 기병을 반반씩 섞은 戰鋒隊를 배치했을 것이다. 특히 전봉대 소속의 보병은 전방의 편상거에 소속한 보병보다 기동력이 뛰어났는데, 기병이 적의 보병대열을 무너뜨리면 재빨리 따라가 혼란한 대열을 공격하였다. 따라서 고구려 군은 후퇴하여 박작성에 들어가 청야입보전술로 방어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당군은 성을 포위하고 2~3개월간 공성전을 전개하였다. 먼저 배행방의 침략군은 요새화된 박작성을 포위하고 충차를 쏘아 성 안으로 진입하려고 했다. 그러나 박작성의 군사도 포차로 돌을 쏘면서 불을 붙인 통나무, 뜨거운 물, 기름 등을 부어 저항하였다. 당군은 여러 방법으로 계속 공격하였지만, 결국 박작성 함락에 실패하였다.

24) 설만철은 당나라 때 지금의 감숙성 돈황현의 변방족 출신 장군이다. 수나라 涿郡太守 薛世雄의 아들로 당나라 고조 때 형 薛萬鈞과 함께 당 나라에 귀순하였다. 당나라 태종, 즉위 후에 李靖을 따라 돌궐 정벌전에 참가하였고, 648년에는 고구려 침공에도 참가하였다. 이정은 설만철에 대해 “용맹하지만 지혜가 없어서 홀로 작전을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평했다(이정 저·이현수 역, 『이위공병법』, 상권, 1996, 68쪽).

이때 고구려 장수 고문이 구원군 3만여 명을 이끌고 박작성에 도착하였다. 고문은 3만의 군대를 두 개로 나누어 진을 쳤다. 설만철도 3만의 군대를 두 진영으로 나누고 즉시 응전하였다. 양국의 기마전은 고구려 군의 패배로 끝났는데, 그 이유는 고구려 기병이 당군의 편상거와 보병으로 구성된 주대의 방진을 뚫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당군은 고구려 구원군을 격파했지만, 박작성을 점령하는 데는 실패했다.

4. 당 고종의 고구려 침공과 기마전

650년에 즉위한 당 고종은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 신라를 동맹자로 끌어들이는 한편 백제를 고구려에서 분리코자 하였다. 그러나 고구려는 655년 백제와 연합하여 신라의 북쪽에 있는 33개의 성을 빼앗고, 양국의 동맹을 더욱 강화했다. 이에 신라는 당나라에 구원을 요청하였다.

신라의 구원요청을 고구려 침략 구실로 삼은 고종은 655년 2월 영주도독 정명진과 좌위중랑장 소정방을 사령관으로 한 침략군을 편성하고, 고구려를 침공하였다. 다음의 사료가 당시 양국의 기마전을 설명하고 있다.

- ① 14년 5월 정명진 등이 요하를 건너니 우리 쪽에서 그 병력이 얼마 되지 않음을 보고 성문을 열고 귀단수(훈하)를 건너가 막아 싸우니, 명진 등이 들이쳐서 크게 이기고, 천여 명을 베어 죽이고, 그 바깥 성과 촌락을 불사르고 돌아갔다.²⁵⁾
- ② 17년 6월 당의 영주도독겸동이도호 정명진, 우령군중랑장 설인귀가 군사를 거느리고 와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²⁶⁾

25) 『삼국사기』, 권 22, 고구려본기 10, 보장왕 하 14년 5월, “十四年夏五月 程名振等渡遼水 我人見其兵少 開門度貴湍水逆戰 名振等奮擊大克之 殺獲千餘人 焚其外郭及村落而歸.”

26) 『삼국사기』, 권 22, 고구려본기 10, 보장왕 하 17년 6월, “十七年夏六月 唐營州都督兼東夷都護程名振·右領軍中郎將薛仁貴將兵來攻 不能克.”

앞의 사료 ①은 655년(당 고종 14) 5월 영주도독 정명진이 요하를 건너 오자, 고구려 군이 성문을 열고 출격하여 혼하에서 교전했지만, 패배했다는 내용이고, 사료 ②는 658년(당 고종 17) 6월 당나라의 영주도독겸 동이도호 정명진과 우령군중랑장 설인귀가 침략군을 편성하고, 적봉진을 불의에 공격하여 승리했다는 내용이다.

정명진이 요하를 도하해 신성 앞에 진을 쳤다. 신성의 고구려 군은 요하를 도하한 정명진의 군대 숫자가 소수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성문을 열고 출격하여 당나라 군대와 기마전을 전개했다.

정명진은 소수의 췌병을 선봉에 배치하여 고구려 군을 유인하였다. 그런데 고구려 기병이 앞 다투어 추격해 오는 것을 보고는 즉시 창을 가진 보병대를 전면에 배치하였다. 강력한 창병이 출현하자, 고구려 기병이 탄 말들이 놀랐다. 한편으로 고구려 기병도 당군의 창병들을 정면에서 공격할 수가 없었다.

보병의 근접지원도 없이 돌격한 고구려 기병대의 전열이 무너졌다. 따라서 기병의 후방에 배치한 보병 전열에도 틈이 생겼다. 이때 적장 정명진이 휘하의 거란 기병을 출격시켜 먼저 보병에 의해 지원받지 못한 고구려 기병을 공격하였고, 다음에는 기병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보병을 공격하였다.²⁷⁾

658년 6월 당나라는 또 다시 정명진과 설인귀가 지휘하는 침략군을 편성하여 적봉진을 불의에 침공하였다. 당나라의 침공을 예상한 고구려는 장군 두방루가 지휘하는 3만여 명의 정예병을 적봉진에 파견해 구출작전을 벌였다.

그러면 당시 양국의 기마전은 어떠했을까? 그것은 『자치통감』에서 “적장 정명진이 휘하에 있던 거란군으로 하여금 고구려 군의 배후를 기습케 했다”²⁸⁾는 사료가 그 실마리를 제공한다.

위 기사의 핵심은 “거란군”과 “고구려 군의 배후를 기습했다”는 것인데, 이들의 공통점은 기병이다. 일반적으로 “기병의 목적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27) 『자치통감』 권 200, 현경 3년 6월.

28) 상계서.

적군의 측면 또는 후면을 공격하는 데 사용한다”²⁹⁾는 사료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정명진이 기마전을 전개하기 직전, 기병의 중앙에 전봉대를 배치했는데, 그것은 보병의 근접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후방에는 순수한 기병대인 도탕대를 배치했는데, 그것은 고구려군의 측면을 공격하여 전투 대열을 무너뜨리고, 한편으로 도주하는 고구려 군을 추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660년(보장왕 20) 당나라는 백제를 멸망시키고, 661년에는 17만 5천여 명을 35개 군단으로 편성하여 수륙 양면으로 고구려를 공격하였다.³⁰⁾ 고구려 공격은 두 방향에서 전개되었다. 먼저 설필하력³¹⁾의 휘하 주력군이 요동지방의 육로로 공격하고, 다음으로 소정방은 수군을 거느리고 대동강으로 진격하였다.

그러면 당 군이 평양성을 포위하는 일련의 과정에 나타난 양국의 기마전에 대해 살펴보자. 다음의 사료가 그것을 말하고 있다.

- ① 8월 소정방이 패강(대동강)에서 우리 군사를 부수고 마읍산을 빼앗고, 드디어 평양성을 포위하였다.³²⁾
- ② 9월 개소문이 그 아들 남생을 시켜 정병 수만 명으로 압록강을 지키니, 당나라 여러 군대가 건너오지 못했다. 설필하력이 당도하니 마침 얼음이 얼었으므로 하력이 군중을 이끌고 얼음을 타고 강을 건너 고태치고 진격하니 우리 군사가 무너졌다. 하력이 수십 리를 쫓아와 3만여 명을 살해하니 남은 군중이 모두 항복하고 남생은 겨우 몸만 빠져 나왔다. 그 즈음에 “군사를 철수하라”는 당 고종의 조서가 있어 드디어 돌아갔다.³³⁾

29) 아더 웨일 저·이춘근 역, 『전쟁의 기원』, 인간사랑, 1990, 109쪽.

30) 『자치통감』 권 200, 당기 16, 고종 龍朔 원년(661)

31) 설필하력은 당 나라 때 철록족 출신이다. 632년에 1천여 명을 이끌고 당나라에 귀화했다. 土容渾, 高昌, 龍茲, 西突厥 등의 정벌전에 참가하여 공을 세워 진군대장군을 지냈다. 뒤에 성국공에 봉해졌다.

32) 『삼국사기』, 권 22, 고구려본기 10, 보장왕 하 20년 8월, “秋八月 蘇定方破我軍於湏江 奪馬邑山 遂圍平壤城.”

33) 『삼국사기』, 권 22, 고구려본기 10, 보장왕 하 20년 9월, “九月 蓋蘇文遣其子男生 以精兵數萬守鴨綠 唐諸軍不得渡 契苾何力至 值冰大合 引衆乘冰度水 鼓噪而進 我軍潰莽 何力追數十里 殺三萬人 餘衆悉降 男生僅以身免 會有詔班師 乃還.”

- ③ 1월 당의 좌효위장군백주자사옥저도총관 방효태가 개소문과 더불어 사수사에서 싸워 전군이 함몰당하고 그의 아들 13명도 함께 싸우다 죽었다. 소정방이 평양성을 포위하였다가 큰 눈이 내리는 바람에 포위를 풀고 물러갔다. 무릇 전후의 걸음에 다 이렇다 할 공이 없이 물러갔다.³⁴⁾

위 사료 ①은 소정방이 평양 부근의 마음산을 정복하고 평양성을 포위했다는 내용이고, ②는 연개소문이 당군의 전투력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아들 남생을 압록강에 파견했지만, 설필하력에게 패배했다는 내용이며, ③은 연개소문이 평양 서남쪽으로 진출하여 소정방과 연합하려던 방효태 부대를 격퇴했다는 내용이다.

대동강 부근에 상륙한 소정방은 평양 근처의 마음산을 빼앗아 지형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 이때 주력군을 성의 서남쪽의 개활지와 서북쪽의 산악지역에 배치하고, 예비대를 마음산 쪽에 배치하였다. 그러나 평양성의 고구려 군이 驍騎를 이끌고 성의 서쪽과 북쪽으로 나가 소정방의 군대를 기습하고, 전세가 불리하면 성 안으로 들어오는 전법을 사용함으로써 공성전은 성과가 없었다.

한편 당 나라의 수륙양군 협동전술을 격파하기 위해서는 요하를 건너 신성 쪽으로 진격하는 당나라 주력군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에 고구려는 각 성이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전술을 버리고, 여러 성의 방어를 위해 1만, 4만, 15만 등의 별동부대를 편성하여 당군의 배후를 공격하는 전술로 전환하였다. 연개소문이 그의 장남 남생을 압록강에 보내 적군의 공격을 방어토록 한 것은 이러한 전술의 일환이었다.

압록강은 설필하력의 당나라 주력군이 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다. 교전하기 직전의 전황은 고구려 군에게 더 유리했다. 왜냐하면 고구려 군은 상류에 위치함으로써 물의 흐름과 바람의 기세를 주도하였고, 또한 설필하력과 그 장병들 대부분이 북방유목민족 출

34) 『삼국사기』, 권 22, 고구려본기 10, 보장왕 하 21년 1월, “春正月 唐左驍衛將軍白州刺史沃沮道總管龐孝泰 與蓋蘇文戰於蛇水之上 舉軍沒 與其子十三人皆戰死 蘇定方圍平壤 會大雪 解而退 凡前後之行 皆無大功而退.”

신으로 물을 잘 다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설필하력의 부대가 얼어붙은 압록강 얼음판을 타고 물밀듯이 강을 건너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다. 처음 양 국의 군대가 접전할 때는 상호 대등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고구려 군 대열이 점차 무너졌다. 그것은 설필하력의 군대가 편상거와 녹각차로 사각 전투 대형을 만들어 고구려 군을 전면에서 저지하고, 중앙과 측면에서는 중장 기병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구려 군의 측면과 후방을 공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남생이 퇴각을 명령한 이후 설필하력의 기병대가 10리까지 추격하여 무참히 살상하였으며, 연남생 부대의 희생자 3만 명이 이때 전사하였다.

한편 662년 2월 당나라 좌효위장군 방효태가 북쪽의 육로로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평양성을 방어하던 연개소문이 정예기병을 이끌고 성 밖 사수(합장강) 가에 진을 쳤다. 연개소문의 휘하 병력은 방효태와 그 아들 13명이 지휘하는 7개 군단의 병력과 비교할 때 수적으로 열세였다.

그러나 연개소문은 사수 주변에 군사를 매복시키고, 한편으로 평탄하고 넓은 개활지에 진을 쳐 지형적으로 유리하였다. 그때 방효태 군대가 고구려 기병이 소수인 사실을 확인하고 보병의 지원도 없이 기병대를 출격시켰다. 그러나 말들이 놀라 달아나면서 전투대열이 무너졌고, 후열의 보병 전열에도 빈틈이 생겼다. 고구려 기병이 무너진 대열의 측면을 공격하자, 부대의 전투 대열이 급속히 무너졌다. 이어서 고구려 군의 맹렬한 추격전이 전개되고 수만 명의 살상자가 발생했다.

방효태 부대는 후퇴하다가 거의 전멸상태에 이르렀는데, 사료 ③의 “방효태가 연개소문과 사수에서 싸워 그의 아들 13명과 함께 전군이 모두 죽었다”고 기록한 내용이 그것을 입증한다. 사수전투에서 방효태 군대가 전멸하자, 평양성 서남쪽에서 공성작전을 전개하던 소정방 군대도 군대를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³⁵⁾

35) 『자치통감』 권200, 당기 고종 통삭 2년; 『삼국사기』 권 6, 신라본기 문무왕 2년 2월

한편 압록강으로 침공한 설필하력의 군대도 고구려 군의 잦은 역습으로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661년에서 662년간 당나라의 고구려 침공은 실패로 끝났다.

666년(보장왕 25) 연개소문이 죽자, 그의 세 아들을 두고 귀족들 간에 정권 쟁탈의 내분이 발생했다. 다시 말해서 동생 남건이 막리지에 오르자, 형 남생은 당나라에 투항하고 숙부 연정토는 12성을 가지고 신라에 투항했다. 이러한 고구려 지배층의 정치적 혼란이 고구려의 군사지휘체계를 마비시키고, 당 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667년 9월 당나라가 고구려의 서북요새지 신성을 공략했다. 고구려 막리지 연남건은 15만 명을 동원하여 요하 경계선을 방어토록 하였지만, 고구려군 15만 명이 전사하였다.³⁶⁾ 당나라는 신성을 격파한 여세를 몰아 668년 2월에는 부여성을 공격하였다.

만약 고구려가 부여성을 지키지 못하면 후방의 경계선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당나라의 모든 군사가 평양성으로 집결하기 때문에 양국은 양보할 수 없는 결전을 준비했다. 다음의 사료가 그것을 설명한다.

- ① 27년 2월 설인귀가 금산에서 우리 군사를 격파하고 승세를 타서 3천 명을 거느리고 선봉이 되어 나아가 우리 군사와 싸워 승리하여 부여성을 빼앗으니 부여도의 40여 성이 모두 항복을 청하였다. (중략) 남건은 다시 군사 5만 명을 보내어 부여성을 응원하다가 이적 등과 설하수에서 만나 싸워 패하니 죽은 자가 3만여 명에 달했다.³⁷⁾
- ② 9월 이적이 평양성을 함락시켰다. 이적이 대행성을 항복시키니 다른 길로 나온 모든 부대도 이적과 합세하여 나아가 압록책에 당도하였다. 우리 군사가 항거했으나, 이적 등은 이를 무너뜨리고 2백여 리를 쫓아가 옥이성을 빼앗음에 여러 성이 서로 도망하고 항복하곤 하였다. 설필하력이 먼저 군사를 끌고 평양성 아래 당도하고 이적의 군이 뒤를 이어 평양성을 한 달

36) 『신당서』 권 220, 열전 고구려

37) 『삼국사기』 권 22, 고구려본기 10, 보장왕 하 27년 2월, “李勣等拔我扶餘城 時薛仁貴既破我軍於金山 乘勝將三千人 爲前鋒以進 與我軍戰勝之 遂拔扶餘城 扶餘道中四十餘城皆請服 (中略) 泉男建復遣兵五萬人救扶餘城 與李勣等遇於薛賀水合戰 敗死者三萬餘人.”

이 넘도록 포위하니 보장왕이 천남산을 보내어 수령 98명을 거느리고 백기를 들고 이적에게 와 항복하였다. 이적은 예로써 대접했으나 천남군은 오히려 성문을 닫고 지키며 자주 군사를 보내어 출전하였으나 패배하였다.³⁸⁾

위 사료 ①은 당 나라 장수 설인귀가 소수의 정예 기병을 이끌고 선봉이 되어 부여성을 함락했다는 내용이고, ②는 천남군이 지휘하는 고구려 군사들이 방어 중심의 청야입보전을 펼치다가 기회를 보아 성 밖에서 기마전을 펼쳤다는 내용이다.

설인귀의 휘하 병사 3천여 명이 부여성에 도착했을 때 당시 성문 밖에는 고구려 군사 수만 명이 진을 치고 있었다. 공격하는 쪽의 군사가 방어하는 쪽보다 3배가 많아야 한다는 견해로 보아도 설인귀 부대의 선제공격은 무모하였다. 따라서 후속하는 이적³⁹⁾의 부대가 도착한 이후에야 교전이 가능했다.

그러나 설인귀 부대는 선제공격을 감행하여 승리하였다. 당시 양국 군대의 기마전은 사료가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위 사료 중 “마침내 선봉이 되어 아군을 물리쳤다”고 한 내용이 당시 양국의 기마전 상황을 반영한다. 즉, 설인귀는 기병과 말을 갑옷으로 무장한 철기병을 이끌고, 자신이 선봉에서 공격 루트를 개척하였다. 설인귀가 이끄는 철기병의 충격이 매우 커서 부여성을 방어하던 고구려 보병 전열에 틈이 생겼다. 그 순간 철기병을 근접 지원하던 설인귀의 보병이 기습 공격을 감행했을 것이다.

부여성의 보병 대열이 돌파되기 직전에 고구려 기병이 적의 주력군에 대항하여 돌파를 시도했지만 실패함으로써 부여성이 함락될 수밖에 없었다.

38) 『삼국사기』 권 22, 고구려본기 10, 보장왕 하 27년 9월, “李勣拔平壤 勣既克大行城 諸軍出他道者 皆與勣會 進至鴨綠柵 我軍拒戰 勣等敗之 追奔二百餘里 拔辱夷城 諸城?逃及降者相繼 契苾何力先引兵至平壤城下 勣軍繼之 圍平壤月餘 王遣泉男產帥首領九十八人 持白?詣勣降 勣以禮接之 泉男建猶閉門拒守 頻遣兵出戰 皆敗.”

39) 李勣은 당나라 초기의 명장이다. 성은 徐氏이고, 이름은 世勣이다. 지금의 산둥성 하택현 서북지역인 曹州 離狐 출신으로 국성을 하사받아 이씨가 되었다. 태종 이세민의 ‘世’자를 피하여 이적으로 개명하였다. 여러 차례 출전하여 전공을 세웠으며, 당나라의 고구려 침공에도 주장이 되었다. 뒤에 曹國公에 봉해졌다.

천남건이 군사 5만을 보내어 부여성을 구출하려고 설하수(소자하)에서 교전했지만, 이적의 군대에게 패하여 3만 명의 고구려 군사가 죽었다.

이적이 거느린 당나라 주력 부대는 대행성과 육이성(청천강)을 차례로 함락하고, 8월에는 평양성을 포위하였다. 이때 천남건은 청야입보전술로 방어하면서 성 밖에서 여러 차례 기마전을 전개했다. 다시 말해서 평양성은 대동강 하류 북안에 있는데, 동쪽과 북쪽은 강과 산으로 막히고, 서남쪽은 넓은 개활지였다. 따라서 천남건은 주력군을 성의 서남쪽에 집결시키고 개문 출격하여 기마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고구려 기병돌격대의 공격은 성과가 없었다. 왜냐하면 고구려 기병돌격대와 처음 접촉한 당군의 보병이 강력한 방진을 이루고 대처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기병공격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보병의 근접지원과 매복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지원기능이 부족한 평양성이 점령됨으로써 마침내 700여 년의 역사가 끝이 났다.

5. 맺 음 말

7세기 중반 당나라는 세계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고구려를 침공하였다. 그러나 기병전술의 측면에서 보면, 전차 부대를 대신하여 기병을 주력군으로 편제함으로써 전투력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의미가 있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당 태종의 1차(645) 고구려 침공과 기마전, 당 태종의 2차(647~648) 고구려 침공과 기마전, 당 고종의 고구려 침공과 기마전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았다.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당 태종의 1차 고구려 침공은 요동성 전투와 안시성 전투로 구분한다. 이들 전투는 또 다시 '평지 기마전'과 공성전 이후의 '성 밖 기마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요동성 밖 '평지 기마전'은 고구려군 보·기 4만과 당나라 기병 4천이 두 번 교전했는데, 먼저 교전한 당나라 장수 장군에는 패

배하고, 뒤에 교전한 도종은 승리하였다. 장군예가 패배한 것은 보병의 근접지원이 없었기 때문이고, 도종이 승리한 것은 고구려군의 흩어진 대열을 철기병으로 집중 공격하였기 때문이다. 이세적 부대가 전투에 합세한 것도 승리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음으로 안시성 밖 '평지 기마전'은 당 태종 군사 3만과 고구려 고연수의 군사 15만이 기마전으로 교전하였다. 당 군은 고연수 군을 안시성 동남쪽 8 리까지 유인한 다음, 높은 구릉에 올라가 매복할 장소를 물색하여 세 개 부대로 진을 쳤다. 고연수는 정예기병을 전면에 배치하여 이세적 군대의 공격을 차단하였지만, 당나라 설인귀가 철기병으로 돌격전을 감행함으로써 고구려 주력군이 무너지고 전투력이 급속히 떨어졌다. 그때 1만의 장손 무기 기병대가 북쪽 산의 계곡을 따라 고연수 부대의 후면을 공격함으로써 3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따라서 고연수는 안시성 교외의 산으로 퇴각하였다.

성이 포위된 이후의 '성 밖 기마전'을 살펴보면, 먼저 요동성 전투에서 당나라 기병은 보병이 성을 오를 때 옆에서 근접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안시성 전투 때는 성의 동남쪽 모서리에 토산을 쌓을 때 군사들을 호위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다음으로 고구려 기병은 창과 갑주로 무장하고 개문 출격하여 速走로 교전한 후 즉시 성 안으로 귀환하였다. 이때 경기병은 창과 가죽으로 만든 갑옷을 착용하고, 중기병은 기병도와 철제 갑옷으로 무장하였다. 당시 고구려 기병은 하루에 6~7차례 성 밖으로 출격하여 기마전을 전개하였다. 토산을 쌓는 기간 중 안시성의 성주 양만춘은 기병을 이끌고 야밤에 개문 출격하여 기습 공격을 감행하였다. 토산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자, 수백 명의 고구려 기병이 즉시 토산을 점령했는데, 이는 고구려 기병의 우수한 기동력을 반영한다.

2차 고구려 침공 때 당 태종은 소부대로 변방을 침공하는 전술을 사용했는데, 요하 근처의 성에서 두 번의 기마전이 있었다. 먼저 647년 3월의 남소성과 목저성 전투인데, 당나라 이세적 군대가 승리하였다. 이세적은 췌병을 전면에 배치하여 남소성의 고구려군이 일시에 공격하도록 유인하였고,

고구려 기병이 공격하자, 전차를 갖춘 駐隊로 방진을 쳐서 격퇴하였다.

다음으로 648년 9월 박작성 전투인데, 648년 9월 당나라 설만철의 휘하 배행방의 군대 3만과 고구려 소부손 장군의 휘하 보·기병 1만이 박작성 40리 전방에 기마전으로 맞섰다. 배행방은 녹각거영을 최전방에 배치하여 전투력을 유지하면서 전진하여 고구려 기병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냈다. 고구려군은 철수하여 박작성에 들어가 2~3개월간 공성전을 계속했다. 이때 고구려 고문 장수가 구원군 3만여 명을 이끌고 박작성에 도착하여 설만철의 3만 군대와 기마전을 전개했지만 패배하였다. 고구려 군의 패인은 당군의 유인전술과 기병에 의한 측면과 후방 공격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당나라 고종에 의한 고구려 침공은 655년 5~6월경에 시작되었다. 고종 연간의 기마전은 네 번으로 구분한다. 첫째는 영주도독 정명진과 좌위중랑장 소정방이 요하의 귀단수와 적봉진에서 교전한 기마전이다. 당시 『자치통감』은 '적장 정명진이 자기의 휘하에 있던 거란군으로 고구려 군의 배후를 기습했다'고 기록했는데, 이러한 사실은 당의 기병이 고구려군의 후방을 공격하여 승리했음을 설명하고 있다.

둘째는 당 나라가 661년(보장왕 21) 17만 5천여 명을 35개 군단으로 편성하여 수륙 양면으로 평양성을 공격한 것이다. 소정방이 6~7만 명의 수군을 이끌고 평양 근처 마읍산에 진을 쳤다. 평양성의 고구려군은 驍騎를 이끌고 성의 서북쪽으로 나가 소정방의 군대를 습격하고, 전세가 불리하면 성 안으로 들어오는 청야입보전법을 사용했다. 한편 연개소문의 장남 연남생은 설필하력 부대와 압록강에서 치열한 기마전을 벌였다. 처음 두 나라 군대는 대등하게 교전했지만, 고구려 군의 대열이 점차 무너졌다. 연남생이 퇴각을 명령하자, 당군의 경기병이 10리까지 추격하여 고구려 군 3만을 살상했다. 당시 고구려군이 후퇴 이동할 때는 기병의 엄호를 받아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처럼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셋째는 662년 2월 당나라 좌효위장군 방효태 부대와 연개소문의 정예기병이 성 밖 사수(합장강) 가에서 교전한 것이다. 방효태 부대는 고구려 기병이 소수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보병의 지원도 없이 즉시 기병을 출격시켰

다. 그러나 말들이 놀라 달아나면서 전투대열이 무너지고 이어서 후열의 보병 전열에 빈틈이 생겼다. 그때 고구려 기병이 무너진 대열의 측면을 공격하자, 방호태 부대의 전투 대열이 급속히 무너졌다. 고구려 군이 맹렬히 추격하여 수만의 당나라 군사를 살상했다.

넷째는 666년에 연개소문이 죽고 세 아들 간에 정권 쟁탈전이 벌어진 이후의 기마전이다. 당나라는 이듬해 9월 신성을 함락하였고, 668년 2월에는 부여성을 함락하였으며, 8월에는 평양성을 포위하였다. 당시 연남군이 청야 입보전술로 방어하면서 주력군을 성의 서남쪽에 집결시키고, 개문 출격하여 기마전을 전개하였지만 패배하였다. 기병공격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보병의 근접지원과 매복전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패배하였다.

(원고투고일 : 2010. 9. 22, 심사수정일 : 2010. 10. 10, 게재확정일 : 2010. 10. 29)

주제어 : 전차부대, 기병, 기동력, 요동성, 안시성, 보병의 근접지원, 남소성과 목저성, 박작성, 방진, 연개소문

<ABSTRACT>

Tang's Invasion into the *Goguryeo* and Cavalry Battles

Yi, Hong-du

The *Tang* Dynasty reinforced the mobility of its force by organizing its main forces, with cavalry instead of chariot units, and invaded *Goguryeo* twice during the reign of Emperor *Taejong* and four times during the reign of Emperor *Gojong*. In the first invasion in May 645 during the reign of Emperor *Taejong*, there were two cavalry battles outside the *Laodong* Fortress between 40 thousands infantrymen and cavalymen of *Goguryeo* and 4 thousand cavalymen of *Tang*. In the first battle, *Janggunye* was defeated, and in the second one, *Dojong* won. *Janggunye's* defeat was mainly because there was no close support by the infantry, and *Dojong's* victory was thanks to the armored cavalry's attack against the disorganized *Goguryeo* Forces. In the cavalry battle outside the *Ansi* Fortress, *Tang* Forces of 30 thousand defeated *Goguryeo* Forces of 150 thousand. *Tang's* army lured *Goguryeo's* force to the place around 3 km to the southeast of the *Ansi* Fortress, and then it lined up at an advantageous spot and launched an assault with its armored cavalry. In addition, 10 thousand cavalymen of *Tang* attacked the *Goguryeo* Forces from behind.

In the second invasion, cavalry battles took place at the *Namso* Fortress and the *Mokjeo* Fortress in March 647. At that time, the *Tang* Forces deployed cavalry on the front line and enticed the *Goguryeo* Force's imprudent attack, and won all the battles. In the cavalry battle at the *Bakjak* Fortress in September 648, *Tang's* force of 30 thousands encountered *Goguryeo* Forces of 10 thousand in the field 16 km away from the *Bakjak* Fortress. In the battle, the *Goguryeo* Forces were defeated as it failed to penetrate into the strong phalanxes of the *Tang* Forces.

Emperor *Kojong* invaded *Goguryeo* four times from 655 to 668. The first invasion was in March June 655. In the battles at *Gwidansu* and *Jeokbongjin* in *Yoha*, the Tang Forces defeated the *Goguryeo* Forces by attacking it from behind. In the second invasion in 661, *Tang's* Forces of 175 thousand attacked the *Pyeongyang* Fortress from the land and the sea, but *Goguryeo* cavalry made sallies outside the fortress and crushed the Tang force. On the other hand, *Yeonnamsaeng* waged a harsh cavalry battle against *Gyepilharyeo* Forces in the *Yalu* River but was defeated. At that time, 30 thousand soldiers were killed while retreating without the cavalry's covering. In the third invasion in February 662, *Yeongaesomun* Forces of *Goguryeo* defeated the Tang Forces in the cavalry battle on the banks of the *Sasu* River outside the fortress. *Tang's* defeat was because of the cavalry's imprudent sally without the infantry's support. In the fourth invasion in 668 after the death of *Yeongaesomun*, *Namgeon* was defeated in the *Pyeongyang* Fortress Battle because he failed to take advantage of the infantry's support and the ambush tactic.

Key Words : Chariot Units, Cavalry, the Mobility of Its Force, the *Yodong* Fortress, the *Ansi* Fortress, Close Support by the Infantry, the *Namsu* Fortress and the *Mokjeo* Fortress, the *Bakjak* Fortress, Phalanxes, *Yeongaesomun's*

